

12/13/20

설교 제목: 야곱이 벧엘로 올라가다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창세기 35 장 1-15 절

- (창 35:1)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벧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절관주** 창 35:7, 창 28:13
- (창 35:2)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절관주** 창 18:19, 창 31:19
- (창 35:3) 우리가 일어나 벧엘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 (창 35:4)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겔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 (창 35:5)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 (창 35:6) 야곱과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벧엘에 이르고
- (창 35:7)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곳을 엘벧엘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낫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라
- (창 35:8)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으매 그를 벧엘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 (창 35:9)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 (창 35:10)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 (창 35:11)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절관주** 창 17:1, 창 48:3, 창 1:28, 창 9:1

(창 35:12)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창 35:13)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창 35:14)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창 35:15)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벰엘이라 불렀더라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사건으로 인해 야곱의 아들들이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 그리고
그 성읍 사람들에게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로 인해 야곱 일가는 멸망할 수 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나무라도 보았지만 이미 얽어진 물입니다.

이제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해 볼 방도가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자 야곱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상에 빠져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후회하며
가슴을 쳤을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가 아직 어미 리브가의 태중에 있었을 때 형 에서가 아닌 그를 택하시고 그 후로 한
시도 그를 떠난 적이 없으셨습니다.

항상 그와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가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었을 때에도 말입니다.

그가 아버지를 속여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자 분노한 형이 죽이겠다고 길길이 뛰어 어쩔수
없이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아람으로 도망치던 날 밤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날 밤 그가 루스 곧 벰엘에서 돌로 벼개를 삼고 땅바닥에 누워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키며 이끌어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 28:10)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 (창 28:11)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 (창 28:12)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 (창 28:13)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 (창 28:14)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 (창 28:15)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당시 형 에서를 피해 밧단아람으로 도망가는 처지에 놓인 그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복받치는 가슴을 안고 아침 일찍 일어나 돌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면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십일조를
드리겠다고 서원까지 했습니다.

밧단아람에 가서 외삼촌과 함께 살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셔서 고비고비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으며 복 주셔서 마침내 큰 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20 년간 살던 밧단아람을 도망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그를 해하러 뒤쫓아 온 외삼촌 라반을 막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의 가장 큰 아킬레스 건인 형 에서와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서 에서로 하여금 동생 야곱을 측은히 여기게 하였으며 지난 날을
용서하도록 하셨고 그리하여 그는 형 에서와의 아름다운 상봉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신실하게 그와의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형 에서와의 문제까지 모두 해결되자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없이도 자신의 힘으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벤엘 대신 나무와 풀이 무성하여 가축을 기르기에 적합한 숙곳에 얼마간 머물다가 다시 그보다 더 좋은 환경인 세겜 성으로 이주해 땅을 사고 정착했습니다. 그러다가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치욕적인 사건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자신과 자신의 집이 멸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어야만 했는데.....

너무나도 후회스러웠지만 일말의 양심이 있어 선뜻 하나님을 찾지도 못합니다.

이런 야곱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비록 당신 앞에 큰 죄를 지은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이 살 수 있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다함이 없고 끝이 없는 사랑이십니다.

(창 35:1)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벤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벤엘로 올라가라고 명하십니다.

'벤엘'은 야곱이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하여 도망을 하는 중에 하룻 밤을 지냈던 곳이자 하나님이 처음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곳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되면 전을 짓고 십일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했던 곳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가나안 땅에 돌아온 야곱이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은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을 이행할 준비를 합니다.

야곱은 벤엘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서둘러 합니다.

(창 35:2)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창 35:3) 우리가 일어나 벤엘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벧엘로 올라가기 전 야곱은 먼저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들에게 영육 간의 정결을 명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야곱의 말을 듣고 야곱의 집안 사람들을 비롯해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를 내놓았고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파묻었습니다.

(창 35:4)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자신들의 귀에 달고 있던 귀고리를 빼서 야곱에게 준 것은 귀고리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악귀를 쫓아내고 행운을 불러들이기 위해 귀고리에 신상이나 주문을 새겨 달고 다녔던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일행들이 세겜 성을 떠나 하나님의 명대로 벧엘로 갔습니다.

(창 35:5)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상과는 달리 가나안 부족 누구도 그들을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보복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여 벧엘로 돌아가는 야곱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야곱과 야곱 일행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벧엘에 도착했습니다.

(창 35:6) 야곱과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벧엘에 이르고

(창 35:7)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곳을 엘벧엘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낫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라

야곱은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가나안 땅에 귀환한 지 10 년만이고 서원한 지 30 년 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격에 겨워 이곳 이름을 '엘벤텔'이라고 명명합니다.
'엘벤텔'은 '벤텔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신앙 간증이며 신앙 고백입니다.

이어서 다소 생뚱맞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에 야곱이 애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창 35:8)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으매 그를 벤텔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드보라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어렸을 때부터 그녀를 돌보았고 리브가가 이삭과 혼인하여
브엘세바로 올 때 리브가를 따라왔던 리브라의 유모였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낳은 후 야곱도 말아 길렀을 것입니다.

어떻게 드보라가 야곱과 함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야곱이 밧단아람에 있었을 때 리브가가 야곱이 걱정이 되어 보냈었을 수도 있었고
또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드보라 자신이 숙곳이나 세겜으로 야곱을 찾아
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드보라가 야곱과 함께 있다가 죽었고 야곱이 직접 드보라를 장사한 것으로 보아 야곱과
드보라의 관계는 아주 특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은 드보라가 죽자 그를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습니다.
알론은 '상수리 나무' 바굿은 '통곡한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드보라의 죽음을 얼마나 슬퍼하고 애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창 35:9)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창 35:10)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창 35:11)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창 35:12)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이 이번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형 에서를 피해 밧단아람으로 도망칠 때 벧엘에서, 두 번째는 외삼촌 라반을 떠나
가나안으로 귀환할 것을 명하실 때 하란에서, 세 번째는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압복강
나루터에서, 네 번째는 디나가 강간을 당한 후 세겜에서 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마다 친히 나타나셔서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약속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것은 이미 30 여년전 압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직후였습니다.

그렇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부름으로써 이제 야곱이란 옛 이름 속에
담긴 아등바등 살아가는 삶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답게 변화되어 언약의 후사로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 엘 사다이 전능한 하나님라고 하시며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이 전능하여 능치 못할 일이 없으므로 내가
지금 너에게 축복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로부터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와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야곱과 그의 후손으로부터 세워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것이라고 축복하십니다.

야곱과 야곱의 후손들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을 확약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창 35:13)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이번에는 이전 네 번 나타나셨을 때와 달리 꿈이나 천사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친히 직접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곳을 벳엘 곧 하나님의 집이라 부릅니다.

(창 35:14)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창 35:15)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벳엘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당신이 택한 자를 끝까지 견인해 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끝이 없고 다함이 없는 사랑에 가슴이 저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이 택한 자인 우리를 내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셔서 끝까지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내십니다.

전능하신 엘 사다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여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
곧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